

<서평>

***Katechon: II Thess 2,1-12 im Horizont
apokalyptischen Denkens***
(Paul Metzger, BZNW 135, Berlin: de Gruyter, 2005)

유은걸*

1. 들어가는 말

성서에 수많은 난해구절이 등장하지만, 단행본 차원의 심도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도리어 드물다. 힘들여 해당 본문을 주해하더라도, 새로운 이해나 번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ὁ κατέχων)가 있어”(살후 2:7)라는 구절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파울 메츠거(P. Metzger)의 저작은 살후 2:1-12의 본문을 묵시문학적 전망 가운데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그 신학사적 의미를 논구한 노작이다. 본 서평에서는 이 연구를 요약하고 그 장단점을 평가하기로 한다.

2. ‘카테콘’¹⁾ 연구의 배경

필자가 메츠거를 처음 만난 것은 2000/2001년 겨울학기 독일 마인츠 대

* Ruprecht - Karls - Univ.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교수. jakob38@daum.net.

1) 엄밀히 말하면 본 서평에서 사용하는 ‘카테콘’이라는 말은, 남성 명사 ὁ κατέχων (ho katechōn, 사람)과 중성 명사 τὸ κατέχον (to katechon, 사물)을 구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메츠거의 독일어 원문 자체가 많은 경우 Katech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살후 2:6, 7에 쓰이는 두 명사형은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도 특별히 구분이 필요하지 않는 한 ‘카테콘’이라는 음역을 사용할 것이다.

학교에서 오토 뵈허(O. Böcher) 교수의 요한복음서 강의를 듣던 때였다. 그는 조교로 들어와 학생들의 질문에 응대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사 논문의 주제로 무엇을 쓰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는 데살로니가후서의 악마가 관심사라고 대답했다. 뵈허는 독일 안에서도 사탄이나 악마, 천사 등에 대해서 독보적인 전문가였다.²⁾ 메츠거는 당시 이미 은퇴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갔고, 그에게 데살로니가후서의 ‘막는 것’에 대한 주제를 받았던 것이다.

메츠거와의 교분은 필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탓에 지속되지 못했다. 그가 학위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한 후 그 논문이 독일의 BZNW 시리즈에서 출판되고 나서야 그 연구 결과를 제대로 접할 수 있었다. 마인츠에 있을 당시 ‘살후 2장의 카테콘이 사람이냐 세력이나’라는 나의 질문에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던 그의 주석적 결론을 비로소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특정 구절 하나를 놓고 단행본 수준의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큰 주제는 흔치 않다. 카테콘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메츠거는 이 주제를 매우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묵시문학적인 전망 가운데 그 의미를 추적한다.

본서는 의외로 데살로니가후서의 ‘카테콘’의 의미를 밝히는 데 그 주안점이 있지 않다. 책의 편제를 보면, 처음부터 살후 2장을 주석한 후 그 결과를 여타 묵시문학에 담긴 ‘종말 지연’과 비교한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일별해 보자.

3. ‘카테콘’ 저서의 내용

본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부인 V장을 제외하면, 주요 논의는 I장 ‘개관’, II장 ‘데살로니가후서’, III장 ‘같은 주제의 병행구절’, IV장 ‘보론’에서 다뤄진다. 각 장의 제목만을 보면 일목요연한 체제를 갖추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사항까지 포함한 목차 전체를 보면 단순한 구성의 저서임을 알 수 있다. I장의 개관은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카테콘의 개념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조사한 후 이에 대한 해석의 사례를 정리한다. 이것은 연구사라기보다는, 교회사 안에서 카테콘이 어떻게 이해되었는

2) 이에 대해서는 뵈허의 70세 기념 문집 F. W. Horn and M. Wolter, eds., *Studien zur Johannesoffenbarung und ihrer Auslegung*: Festschrift für Otto Böcher zum 70. Geburtsta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5)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지를 요약한 것이다(15-47). 카테콘의 정체로는 ‘로마 제국’, ‘성령’, ‘하나님’, ‘천사’, ‘악마적인 세력’ 등이 제안되었다. 일련의 해석만 놓고 봐도, 카테콘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II장 ‘데살로니가후서’는 성서 본문의 주해를 담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구조적인 특징, 데살로니가전서와의 관계, 저자와 연대 등의 개론적 문제를 짚어본 후, 살후 2:1-12을 매우 자세하게 분석한다. 메츠거는 외부의 탄압에 짓눌린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 편지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120-122).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는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다(123). 데살로니가후서는 이 모든 현상이 악마가 역사한 결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대적하는 신’(Widergott)³⁾이라 불리는 존재(2:4)가 활동하고 있으나 그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 이가 ‘카테콘’이다. 그러나 카테콘이 ‘불법의 비밀’(μυστήριον τῆς ἀνομίας)에 공동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단지 악이 악을 대적하여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참조 막 3:22). 결국 카테콘이 공동체를 보호하거나 돕는 긍정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13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 일부이기도 하다(289). 그가 역사에서 제거되면(ἐκ μέσου γένηται 2:7), 대적하는 신이 발흥하는 최후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살후 2장의 해석은 그저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난해한 것이다. 악한 존재끼리의 대결 구도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카테콘’이라는 지칭은 데살로니가후서의 독특한 표현이다. 사실 데살로니가후서에 등장하는 카테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라면, 본서는 여기에서 끝나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메츠거는 III장에서 이 데살로니가후서와 비견할 만한 여타 문헌들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에스드라4서, 바룩서, 가명으로 작성된 필로의 문서 등을 비교하고 있다. 이 작업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는 아래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베드로후서에 핵심 주제인 ‘재림의 지연’은 - 데살로니가후서와는 달리 -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존재하느냐는 물음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다(152).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 줌으로써, 이런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종말은 결코 지연되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어 요한계시록에 눈길을 돌린다. 계

3) 『개역개정』에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라고 되어 있다(ὁ ἀντικείμενος καὶ ὑπεραιρόμενος ἐπὶ πάντα λεγόμενον θεόν).

시록은 짐승과 예언자가 대립하는 현실 세계의 심판과 압박한 어린 양의 심판의 대립을 목도한다(168). 그러나 천년이라는 시간이 상징하듯, 그 종말은 늦어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5:1-5에 등장하는 ‘합당한 자’인 어린 양이 종말을 이룰 때까지, 정해진 숫자의 순교자가 등장하는 현재 역사의 진행은 불가피한 것이다(183).

지연된 하나님의 통치는 에스드라4서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 문서는 제2 성전의 파괴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파국의 이유를 설명하고 고난 받는 의인의 문제를 다룬다(194-198).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악인에게 복수해 주시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4에스 7:113). 그러나 종말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오히려 인간이 연단받고 참된 백성이 드러나기 위한 기간이 주어진 것 - 재림의 지연 - 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이다(210). 바룩서 역시 의인이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지에 관심을 둔다. 바룩서의 시각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패망은 그들의 죄악에 기인하는 것이다(214). 이에 따라 심판의 지연은 도리어 하나님의 인내이며, 그 기간 동안 의인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바룩 21-25). 메츠거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카테콘 표상과 매우 근접한 동기로 해석한다(223).⁴⁾

필로의 가명문서(LAB) 51:3-6은 사무엘상 1-2장을 배경으로 삼아, 심판에 대해서 짙막하게 언급한다(225-228). ‘심판은 막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메츠거에 따르면 이 ‘막는 자’에 대한 언급은 데살로니가후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에, 이 언급은 해당 본문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후서의 표상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IV장은 보론(Exkurse)이라는 이름으로, 공관복음서의 ‘소묵시록’(막 13:10 병행), 쿤란 문서에 담긴 재림 지연의 문제를 다룬다. 마가복음 13:10의 ‘이방 선교가 완결되어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언급은, 종말의 지연이 아니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구절이다(237-242). 아마도 카테콘과 직접 상관이 없다는 판단하에 보론으로 취급한 것 같다.

4. ‘카테콘’ 해석에 대한 평가

이제 본서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메츠거의 저서는

4) 이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바룩서의 주요 주제인 하나님의 인내는, 결국 긍정적인 존재로 해석할 수 없는 살후의 카테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상에 있어서 양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카테콘은 때가 되면 결국 중심에서 밀려날 존재이다.

일단 해당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⁵⁾ 가벼운 몇 가지 문헌을 제외하면, 굳이 연구사를 쓸 것이 없을 만큼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별히 사탄, 악마, 천사 등에 대한 주제는 신약학계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점은 독일 학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메츠거는 전승사가 아니라 동기사적으로 데살로니가후서의 논제를 광범위한 여타 문서와 비교하며 적용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카테콘이 재림의 지연에 관여하고 있는 양상이 과연 종말론을 드러내는 다른 문서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추적한 것은 큰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성서학 특유의 전승사가 통시적으로 앞 시대의 사상을 해당 문서의 저자가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논의했으나, 그 좁은 적용 때문에 확장성이 부족했다. 메츠거의 시도는 훨씬 더 광대역의 문서를 짚어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본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첫째, 상기 언급한 ‘카테콘’ 저서의 장점은 동시에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메츠거가 논의한 바와 같이 ‘카테콘’이라는 용어나 쓰임새, 나아가 ‘불법의 비밀’에 담긴 함의 등은 여타 묵시문학에서 명확한 병행구절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과연 이런 카테콘 표상과 묵시문학의 종말론 사이에 연속성을 전제한 채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시된다. 책의 2/3에 해당하는 후반부에서 카테콘은 사실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책의 제목 자체를 ‘재림의 지연’으로 정하는 편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⁶⁾ 메츠거가 ‘동기상 병행구절’(Motivische Parallelen)이라는 항목 아래 묶은 여러 문헌은 묵시문학의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평균치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가령 요한계시록과 에스드라4서, 바룩서 사이에는, 기독교 묵시문학과 유대교 묵시문학의 차이가 엄존한다. 초대교회의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시에, 그의 선포와 사역에서 이미 하나님의 실현된 종말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문서는 재림의 지연을 상이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5) 참조, Ch. H. Giblin, *The Threat to Faith: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Re-Examination of 2 Thessalonians 2*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 1967).

6) 사실 이런 연구 주제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R. Bauckham, “The Delay of the Parousia”, *Tyndale Bulletin* 31 (1980), 3-36; E. Gräßer, *Das Problem der Parusieverzögerung in den synoptischen Evangelien und in der Apostelgeschichte*, BZNW 22 (Berlin: De Gruyter, 1977); K. Erlemann, *Naherwartung und Parusieverzögerung im Neuen Testament: Ein Beitrag zur Frage religiöser Zeiterfahrung*, TANZ 17 (Tübingen; Basel: Francke, 1995).

둘째, τὸ κατέχου와 ὁ κατέχων을 각각 세상의 ‘세력’과 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해한 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카테콘이 부정적인 세력으로서 메시아의 재림을 막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요소로 기여할 수 있는가? 논평자의 판단에, 데살로니가후서의 저자는 ‘막는 것’과 ‘막는 자’를 형식적으로 등치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막는 자’의 기능이 ‘막는 것’에 있음을 보여 주고 싶었을 뿐이다. 곧 τὸ κατέχου은 ὁ κατέχων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⁷⁾

셋째, 이른바 가명 서신으로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연구할 때, 암시된 저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닌 실제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문제, 즉 그가 바울 이후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권고하는 상황의 난점을 면밀히 감안하지 않은 대목도 눈에 띈다(108, 참조 121).⁸⁾ 이미 세상을 떠난 바울이 실제 독자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상호본문성에 근거하여 메츠거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만이 아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저자가 - 적어도 우리에게 난해해 보이는 - ‘카테콘’ 표상을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독자들이 그에 대해서 친숙했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의가 없는 것은 아쉽다.

넷째, 우리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메츠거의 결과물을 토대로 카테콘의 정체와 관련된 저자와 독자의 상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성서 번역에 있어 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는 한층 더 어렵게 되고 말았다.⁹⁾ 물론 본문상의 모든 면면을 낱낱이 밝혀야 성서주석의 궁극

7)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메츠거가 ‘불법한 자’(2:8)는 ‘불법의 비밀’, ‘막는 자’는 ‘막는 것’의 인격화라고 주장하는 지점이다(125). 명사의 성 이외에 이렇게 주장할 근거는 딱히 없다. 본문을 놓고 보면, 오히려 두 세력 자체가 이미 인격화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일하고’(ἐνεργέω) 있고, ‘막는 것’이 ‘저지하고’(κατέχω) 있기 때문이다. 이 세력의 하수인으로서 현실 세계의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동의하겠으나, 메츠거는 주장은 이런 방향이 아니다. 고대 사회의 인격화 기법에 대해서, E.-G. Lyu, *Sünde und Rechtfertigung bei Paulus: Eine exegetische Untersuchung zum pln. Sündenverständnis aus soteriologischer Sicht*, WUNT 2.31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81-284.

8) 이에 대해서, A. Merz, *Die fiktive Selbstausslegung des Paulus: Intertextuelle Studien zur Intention und Rezeption der Pastoralbriefe*, NTOA 52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Fribourg : Academic Press, 2004), 5-35, 195-244.

9) 「성경원문연구」에서 다룰 서평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주석적 연구의 결과가 성경 번역에 별다른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역성서는 살후 2:6과 2:7을 다음과 같이 옮긴다. 『개역개정』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새번역』 “**그자가 지금은 역제를 당하고 있지만**”/ “**역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공동개정』 “**그자는 지금 어떤 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가 없어지면**”; 『성경』 “**어떤 것이 그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저지하는 어떤 이가**”. 기존의 한역본은 카테콘을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가가 상당히 고심했음을 엿볼

적인 목적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석자는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순 번역으로 원문의 뜻을 전해 줄 수 없다면,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해설’을 덧붙일 수 있느냐라는 점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5. 나오는 말

앞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카테콘은 고대의 세계관을 숙고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신약성경 전체의 난해구절이다. 파울 메츠거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를 유대교와 기독교 묵시문학과 비교함으로써, 데살로니가후서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자 애썼다. 그에 따르면 카테콘은 이 세상에 속한 세력으로서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종식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개입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그 카테콘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에게서 유래하는 긍정적인 존재는 아니다. 연구를 숙독하고도 데살로니가후서의 상황과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성서해석의 최종 결과물은 번역에 반영된다고 할 때, 이 연구가 성서 번역가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는 못한다는 인상이자다.

<주제어>(Keywords)

데살로니가후서, 카테콘(‘막는 자[것]’), 종말의 지연, 묵시문학.

Der zweite Thessalonicherbrief, Der/das Katechon, Parusieverzögerung, Apokalyptik.

(투고 일자: 2020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0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10월 19일)

수 있다. 『개역개정』을 제외한 대부분 역본은 2:6을 의역했다. 특별히 『새번역』은 2:7에서 존대법을 사용함으로써 카테콘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말에만 존재하는 번역상의 난점이라 하겠다.

<Abstract>

**Book Review - *Katechon: II Thess 2,1-12 im Horizont
apokalyptischen Denkens***

(Paul Metzger, BZNW 135, Berlin: de Gruyter, 2005)

Eun-Geol Lyu
(Hoseo University)

In seiner 2004 in Manz angenommenen Dissertation versucht Paul Metzger, den unter Exegeten äußerst umstrittenen Sinn des Katechon in 2Thess 2,6.7 zu erhellen und ihn mit apokalyptischen Parallelen zum Vergleich zu bringen. Nach der gründlichen Exegese des Textes kommt der Autor zu einem Ergebnis, dass das Katechon als Macht zu verstehen sei, die Wirkung des Widergottes in letzten Zeiten verhindert (vgl. 2,4). Jedoch sei diese Rolle des Katechon auf die Frist beschränkt, nach der es aus dem Weg geräumt werden sollte, und der Widergott erneut zu wirken beginnen würde. Metzger vergleicht dann dieses Katechonbild mit der Problematik ‘Parusieverzögerung’ in der jüdischen und christlichen Apokalyptik und sucht die Kontinuität dazwischen.

Mezgers Arbeit könnte man kritisch hinterfragen, auch wenn man ihren Beitrag genügend anzuerkennen vermöchte. Es bleibt vor allem unbegründet, ob in der übrigen Apokalyptik wirklich eine solche Kontinuität besteht. Denn die Katechonvorstellung ist derart einzigartig, dass die Wendung sonst kaum ausdrücklich belegt ist. M. E. hätte der Titel ‘Parusieverzögerung in der Apokalyptik’ also besser gepasst.